

'육아휴직' 쓸 때 '눈치', 복귀 때는 '걱정'

직장인 45.2%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쓴다 "회사 상황 때문에" "다녀오면 자리 없어" "육아휴직해도 기존 삶 유지할 수 있어야"

여전히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사용이 망설여진다는 반응이 많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상당수 직장인들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 전에도 사용 이후에도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힘들다고 답한 비율도 39.6%에 달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홍모(33)씨는 최근 다녀왔을 때 아내와 달리 육아휴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아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현실적으로 휴직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다.

홍씨는 "기업 규모가 작고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단기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 적임자가 없어 구하지 못했을 경우, 팀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재직 중인 직장은 한참 성장 중이고 내가 주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주위 '눈치'...다녀오면 자리 사라지기도

육아휴직은 사용 전 협의도 쉽지 않지만, 복귀 후에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는 박모(32)씨는 "동료들이 도와줘 휴직 사용은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휴직 시점이 꼬이면 약 2년 동안 평가를 받지 못해 승진 기회가 밀릴 수 있다. 복직 자체만

보장이 돼 있지 근무 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결국 경력과 휴직을 맞바꿔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육아휴직 중인 신모(33)씨도 "육아휴직을 쓰자마자 다른 팀 인원이 내 자리에 배정됐다. 이대로라면 복귀했을 때 원래 부서로 복귀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일한 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팀에 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이다. 이제 막 육아휴직을 써 복귀까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개선이나 회사의 협조 외에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주변의 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아휴직 후 복귀해 경기도 김포시 일하는 제조업 직장인 정모(32)씨는 "육아라는 직장이 한 개 더 생긴 느낌이다. 양쪽 다 충실하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며 "가족의 도움뿐 아니라 회사 팀 내 분위기가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력한 단속" 의치지만... "제도가 현실과 괴리"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육아휴

직 문화 확산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3+3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라는 취지지만, 수당 의존도가 높은 직장일 경우 생계 부담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홍씨는 "수당 등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직장인들은 생계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단속이 잘되는지도 봐야겠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해도 최소한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무안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교통안전 캠페인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지난 27일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영기자



나주경찰, 동신대학교 불법촬영카메라 합동 점검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24일 동신대학교에서 대학생 치안 서포터즈인 '유니폴'과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소방, '2023년 생활안전 기술경연대회' 2연패 달성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제2회 전남 생활안전 기술경연대회'에서 2년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생활안전순찰대, 목사동면에서 따뜻한 첫 발걸음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곡성군과 함께하는 '희망복지기동서비스'를 최근 목사동면 동암마을에서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전남병무청, 고충군청과 의회 찾아 소통 나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27일 고충군청과 의회를 방문해 병무 행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의무경찰 창설 5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7일 52년간 경찰서 경비합정 파출장소 등 다양한 부서에서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의 국가적 사명을 함께한 의무경찰 전역신고 및 해단기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건설노조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하라" 촉구 나서

"현장 불법 고용 외국인 비율 70% 달해" "지역 노동자 피해 이어져...행동 보여야"

광주·전남 건설노조가 외국인 불법 고용 현수소를 지적, 당국을 향해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주요 현장에서 민간과 관급 구분 없이 외국인 불법 고용이 만연해 지역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노조는 그동안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또) 외국인 불법고용 일제단속 기간인

에도 국토부는 현장점검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는 3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불법 고용된 비율은 70% 정도"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고용 외국인을 5만~1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 고용된 자들이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불법 고용은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국을 향해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인 불법고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내국인 건설인력 기반이 무너지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붕괴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지역 현장 일제 점검 ▲건설 현장 내 지역민 우선 고용 ▲행정 당국의 현장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서선욱기자

'흡연 시비'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경찰 끈질긴 수사에 덜미 잡아

경찰 추적 따돌리려 SNS 허위 게시물 통해 위치 속여

술집 화장실에서 흡연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마구 때린 조직 폭력배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석 달 만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 40분께 광주 서구 한 술집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손님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중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 중, 폭력 전과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몸 담고 있는 폭력조직 규모는 20~30여 명 패거리로 이뤄져 다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폭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경찰 수사를 따돌리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꾸민 사진·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SNS 게시 사진 속에서 식별한 광고물 상호를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 지난 20일 오후 1시 5분께 전남 장흥 모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또 잠적한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

경찰은 보복 범죄 등 예방을 위해 B씨와 담당 형사간 1대1 핫라인을 구축,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민, 영세 상인, 이주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행·갈취 등 상습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 수사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겠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적극적인 시민 신고와 제보를 강조했다.

또 보복 우려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120일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유나기자



봄 행락철 자동차 안전점검 꼭 받으세요

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성당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문화조성과 교통사고 30%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 정비와 점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